

14. 4. 19. 국가직 9급 <S 책형> 정답 및 해설 - 남부고시학원 전선헌 교수

일단 정답과 해설 올립니다. 총평은 잠시 뒤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 정답 2번 : '윗돈'은 비표준어, '웃돈'이 표준어이다.
2. 정답 4번 : '설레다'는 '이'접사를 사용하지 않는 용언으로, '설레이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3. 정답 2번 : '세대'와 '간'은 띄어 쓴다. 이때 '간'은 '관계'의 의미를 지닌 의존명사이다.
4. 정답 1번 : '왕십리는 [왕심니]로 발음되므로 'Wangsimni'로 표기해야 한다.
5. 정답 2번 : 주어진 대화에는 '학생들과 면담이 계시다'라는 잘못된 높임표현이 쓰였다. 이와 유사한 오류로 '햄버거 나오셨습니다.'를 찾으면 된다.
6. 정답 1번 : '논공행상'은 '공적의 크고 작음 따위를 논의하여 그에 알맞은 상을 줌'의 의미이므로 '별을 주다'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초근목피'는 '풀뿌리와 나무껍질이라는 뜻으로, 맛이나 영양 가치가 없는 거친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반포지효'는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孝)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아버지의 은혜를 갚는 효성', '각고면려'는 '어떤 일에 고생을 무릅쓰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무척 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노력함'을 각각 이른다.
7. 정답 1번 : '군식구'의 '군-'은 '가외로 더한, 덧붙은'의 의미이다. 나머지는 '쓸데없는'의 의미이다.
8. 정답 1번 : '다섯 권'의 '다섯'은 단위명사 '권을 수식하는 수관형사이다.
9. 정답 3번 : <보기>는 열거의 방식이 쓰였는데, 선택지 3번 역시 열거의 방식이다.
10. 정답 4번 : '디지털 기기의 사용 시간 제한'은 'Ⅱ-2'의 내용과는 연관성이 없다.
11. 정답 3번 : ㉠ 과학과 종교는 상호 보완적이다 → ㉡ 과학은 실재에 관심을 둔다 → ㉢ 반면 종교는 실재보다는 당위에 관심을 가진다 → ㉣ 이처럼 과학과 종교는 배타적이라고 볼 수 있다 → ㉤ 그러나 각자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다.
12. 정답 4번 : 동양도 조립 구조물을 만드는 방식-목재 가구법-이 있으므로 인공조형물 자체에 대해 폐쇄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13. 정답 2번 : ㉠은 '하늘의 끝', ㉡, ㉢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의미한다.
14. 정답 1번 : 문제에서 말하는 '용언의 종류'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의미한다면 '들고 가셨다'는 본용언, 나머지는 보조용언이다.
※ 만약 품사를 물어 본 것이라면 정답 3번 보조형용사, 나머지 1번은 본동사, 2번은 보조동사, 4번도 보조동사이다. 그러나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물어 보는 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
15. 정답 4번 : 주어진 글의 마지막 부분에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인 여행자들은 여염집 대문 앞에서~'라는 내용이 나온다. 즉, 민간인 여행자들은 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
16. 정답 2번 : 주어진 내용에 역사적 사례는 등장하지 않는다.
17. 정답 3번 : '길섶'은 '길의 가장자리'를 뜻한다.
18. 정답 3번 : 백석의 <모닥불>은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삶과 비극적 역사'를 이야기한 시로, 모닥불에 타고 있는 사물들의 열거, 보조사 '도'의 반복 사용, 토속적 시어들의 나열 등이 특징이다.
19. 정답 4번 :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은 없다.
20. 정답 2번 : 이호철의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는 '일상 속 권력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어진 내용에서는 인물들의 외양과 말투가 중점적으로 부각되어 그들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한다.

